



# 한국의 보물, 해인<23>

##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인

의상에게 화엄교학을 배웠던 제자들이, 그들의 연원을 밝히는 상징으로서 「해인도」를 그려서 간직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러한 필자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기록이 고려시대의 승려 균여(均如, 923 - 973)의 『석화엄지귀장원통집(釋華嚴旨歸章圓通集)』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라 스님 지통(智通)은 의상대덕(義相大德)의 열 분 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대백산(大白山) 미리암혈(彌理巖穴)에서 화엄관(華嚴觀)을 닦을 때, 하루는 갑자기 동굴 밖을 급히 지나가는 큰 산돼지를 보았다. 항상 예불드리는 목각존상에게 그의 정성을 다해 (그 연고를 알기) 발원했다. 목각존상이 “동굴을 지나간 돼지는 바로 너의 과거 몸뚱어리였고, 내가 바로 네가 장차 과보로 이를 부처다.”라고 일러주었다. 지통이 이 말을 듣고서 즉시 삼세일체(三世一體)의 법문(法門)을 깨달았다. 훗날 (지통이) 의상대덕(義相大德)에게 나아가 이 일을 아뢰니, 의상대덕께서 그 그릇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드디어 법계도인(法界圖印)을 (지통에게) 수여하셨다. ---

--- 新羅僧智通，乃相德十聖弟子之一也。居大白山彌理巖穴，修花嚴觀，忽一日見大猪，過穴門及通，依常禮木刻尊像，盡其誠懇。像謂曰，過穴之猪，是汝過去身，我即是汝當果之佛也。通聞此告，即悟三世一際之法門矣。後詣相德敘之，相德知其成器，遂以法界圖印授也。---

의상스님은 제자들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법계도인(法界圖印)'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통(655 - ?)이 의상에게서 받았다는 법계도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의는 더 이상 부연되는 설명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아마도 법계도인은 법계도(해인도)를 새긴 물체가 아니었을까? 법계도 자체가 인상(印像)을 하고 있으므로 인(印)을 다시 쓴 것은 동아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인(印)을 덧붙인 것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연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승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증거로 특별한 물건을 전해 받았다는 주장은, 중국 선종(禪宗)에서 제자가 계승(傳承)을 읊으면 그의 깨달음을 인가한다는 표시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이 평생토록 읽고 다니던 단 한 벌의 가사를 전해준다는 전의설(傳衣說)과 유사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를 스승의 범맥을 이은 유일한 정통(正統)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후대의 가탁(假託)에 불과하다. 자신만이 스승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한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느냐 또는 정말로 가사(袈裟)나 바리때 등의 신호(信標)가 단 하나만 있었는가의 진짜나 가짜의 문제가 아니다. 스승의 적통(嫡統)임을 부여하는 제자들이나 그 스승의 사상을 받아들인 후대인들은 끊임없이 전의설(傳衣說)과 전법설(傳鉢說) 등 유사한 주장을 했으며, 그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다는 점이다.

애초의 논의로 돌아가면, 의상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지통(智通)은 스승인 의상으로부터 법계도인을 직접 전해 받았노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상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10명의 제자 모두가 스승인 의상으로부터 특별한 물건들을 전법(傳法)의 표시로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가까운 이야기가 유포되기 시작했고, 차츰 이러한 이야기는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상에게 10명의 큰 제자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도 후대인들이 설정한 어떤 의도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 어찌 의상에게 하필이면 10명의 큰 제자만 있었겠는가? 10이라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표상되어야만 의상이 세사에서 할 일을 모두 마쳤으며, 나아가 그의 정법(正法)이 온전히 제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굳이 '10대 제자'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라.

어쨌든 후대인들에 의해 의상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신호를 주었던 인물로 믿어졌다.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진실로서.



### 소설에 보이는 의상대사의 해인

해인에 대한 이러한 믿음에 영향을 받은 후대의 학자 가운데도 의상이 제자들에게 해인을 전해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조명기는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의상(義相)이 귀국 후 해인도(海印圖)를 교과서로 하여 제자에게 교수(敎授)하는 동시에, 전법(傳法) 삼보(三寶)를 작(作)하여 제자 중에 화엄오지(華嚴奧旨)를 절(徹)하여 교화(敎化)를 담당할만한 자가 있으면, 이 해인도(海印圖) 일매(一枚)를 전하여 신(信)을 표(表)하는 것이다. --- 화엄종 본산에서는 해인(海印)과 화엄경판(華嚴經板)과 무공주(無孔珠)를 삼보(三寶)로 하고, 대대로 전하는 것을 종풍(宗風)으로 삼는다. ---

위의 인용문은 해인이 화엄경판과 구멍이 없는 수정구슬과 더불어 한국 화엄종의 3가지 보물로 손꼽힌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단순해 해인도를 종이 위에 그린 것을 해인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다. 한국 화엄종의 종맥(宗脈)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보물 가운데 첫손가락에 꼽히는 해인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의상스님이 종이 위에 그린 해인도(海印圖)'라든 설득력이 전혀 없지 않는가?

한편 소설로 정착된 의상대사에 얽힌 이야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익의 『역사소설 의상대사』(1977)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법계도승(法界圖頌, 해인삼매도(海印三昧圖)) --- 대사는 다시 이 도(圖)와 같은 인장(印章) 십개(十個)를 만들어 십대제자(十大弟子)에게 전하였는데, 그 인장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말세에 이 인장을 들고나오는 도인(道人)이 이 세상을 구제한다는 전설도 있다.

--- 대사는 일찍이 당나라 중남산에서 산출한 법계도승을 그 도(圖)와 같이 쇠로 부어 도장(圖章) 열 개를 만들어 십대제자에게 전해주며, “이 ‘도장’은 법계(法界)의 실상과 연기(緣起)의 무진한 인과법(因果理法)을 표시한 것이니, 내가 이것으로써 화엄대법(華嚴大法)을 그대들에게 전하여 주는 신호(信表)로다. 아무쪼록 이것을 가지고 길이 정법을 호지(護持)하여 무한한 인천(人天)의 복밭이 되며, 어두운 방의 등대가 되며, 고해(苦海)의 자항(慈航)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그 도장을 십대제자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주며 ---

소설행사에 이르러 의상이 「해인도」를 도상으로 새긴 쇠로 만든 인장을 10명의 제자에게 신호로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의상의 말을 빌려 이 쇠도장은 화엄대법을 전하는 신물(信物)이 된다. 나아가 말세에 이 도장을 가진 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제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진다. 허구(虛構)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신빙성이 없는 허황한 이야기라고 판단하고 말 것인가?\* 김탁박사/선종교연구가

##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 【12】

### 9. 가나안 혼인 잔치집 주인공 예수

예수의 부활 승천의 신화를 깨고 지난 세기 영국 법정에서 대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영국 BBC 방송국 기자였던 한 사람이 '성령성배'라는 책을 써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자, 기독교인들로부터 법적 소송이 걸려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다. 결국 증인으로 예수의 후손들이 나타나 프랑스에 살고 있음이 드러났고, 책을 쓴 저자가 법적 소송에서 이겨서 세계적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1982년 2월 23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도 대서특필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영국과 미국 등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행림출판사에서 『성령과 성배』라는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결국 예수의 후손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십자가 처형 이전에 어디선가 결혼을 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승천하였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영원히 어딘가로 망명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결혼을 상징하는 기록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결혼한 것을 억지로 숨기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세계적으로 성인이라는 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낮추어 보는 사람은 없다. 그 후손들이 있다면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의 관습대로 '랍비'라 불리다가 나중에 주님이라고 불렸다. 랍비는 결혼한 사람을 두고 높여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사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 하나님

이외에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와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부리던 종들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당시 결혼식의 주인공 되는 신랑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찾아와 걱정하며 의논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아들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가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대.”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불경스럽게 대답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화가 나서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며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 그러자 종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여섯 개를 꺼내었다.

이쯤 되자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하여 종들이 물을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주라” 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주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요:2:10)” 하였 다. 이처럼 두세 통들이 돌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부어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는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 예수의 처음 있는 표적을 영광이라 했다. [※ 예수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외경(外經)이나 가경(假經, apocrypha)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깊숙한 창고에 있는 묵은 포도주를 끌어내다가 손님을 대접하니까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더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여기서 조금만 눈여겨보면, 손님으로 청함받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의 말처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인가? 만약 주인이 아니라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찾아와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의논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종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예수가 뭐라 하든지 자기가 지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종들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웠다고 하니, 손님을 접대할 잔치집 주인이 곧 마리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중에 나온 술맛이 좋다고 하며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는 주인공 되는 신랑은 누구일까?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가 만들었고 칭찬받은 사람도 예수여야 한다. 예수 역시 청함 받은 잔치집에서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허드렛물을 담아두는 돌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날처럼 흔한 플라스틱 물통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고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각본을 짜기 위해서 물통이라는 무대 배경의 소품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요한 복음서의 기자가 착안할 수 있는 물통이라곤 물을

담아 사용하는 돌항아리 밖에 없었고 백 명 내지 이백 명의 객들을 감안하여 돌항아리 하나로 부족하니까 여섯 개로 늘린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예수 사후 90여년이 지나서 써졌기에, 아마도 요한복음서 저자는 돌항아리의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야기를 꾸민 것 같다. 왜냐하면 돌항아리는 사람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허드렛물을 담아두는 세숫대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세 통들이 돌항아리 여섯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사실 그 속에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없이 맹물을 부었다고 해서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 이를 두고 예수의 처음 표적이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믿었다는 제자들 역시 이쯤 되면 예수를 신격화하는 수준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신격화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성경 내

용을 보고 이상하 여길 줄 모른다면, 2천 년 전 어리석고 신화가 난무하는 시대의 백성들처럼, 아직 예수의 우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거짓 역사를 꾸미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을 신격 화하고 우상처럼 받드는 것도 역시 어릴 적부터 세뇌 교육의 탓이 아닌가?

예수 당시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개척한 박혁거세, 김알지 등의 주인공들이 알에서 탄생했다는 난생신화를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 북한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신격화하고 있는 김일성이 항일투쟁 시에 술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암록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젓먹이 유아들이나 믿을 일이지 어른들이 그것을 믿을 것인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 아래 단추는 당연히 어긋나게 되어 있다. 없던 사실을 있게 한다든지, 있던 사실을 없게 한다는 것은 신화나 우상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처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설이 그러하고, 예수

의 하나님 독생자론이 그러하며,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신랑되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일부러 숨긴다는 것이 그러하다.

이처럼 예수의 일생이 신화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2천 년 전 신화시대나 있을 일이다. 참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신화로 꾸미지 않아도 그것이 증명된다. 즉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모세의 출애굽 전후의 기적과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했다는 만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신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이슬성신의 역사와 인류를 향한 5대 공약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꾸미지 않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行 徐赫

### 말씀 묵상으로 구세주의 실체를 알아가기

“옛날에 광명리 전도관에 그대로 종열이 엄마라고 미쳤어요. 그래서 신앙촌 청년들을 이 사람이 데리고 그 귀신들린 자를 고쳐준다고 간 겁니다. 가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귀신들린 종열이 엄마를 계속해서 생수를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보니까 종열이 엄마가 정신이 제 정신으로 돌아 왔습니다. -(종락- 대개 허약한 사람- 대개 이제 거어- 쫓 대개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열이 엄마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열이 엄마에게 영모님이 축복한 생수를 먹였습니다. 생수를 갖다 주면 피라고 하고 안 먹어요. 왜, 나한테 피를 먹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요. 그렇지만 이걸 피가 아니고 생수니까 먹어! 먹으면 이 정신병이 나아버려!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그래 안 먹으니까 입을 여기 양쪽을 누르면요~ 입이 벌어져요. 벌 어졌을 때에 그 생수를 부는 거예요. 그래 부니까 생수가

흘러서 막 웃에도 못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먹였어요. 강제로 먹이면서 예배를 열심히 봐주니까 마귀가 도망 가버 렸어요. 그래서 그 종열이 엄마의 미친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전도촌 출신이라면 이제 광명리 종열이 엄마의 미친병이 나았다는 것을 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2002.9.6. 말씀) 묵시록 11장에 감람나무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감람나무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긴자께서 1981년에 5대 공약을 선포하셨는데, 한국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고 장 마를 못지게 하여 해마다 풍년들게 하겠다는 내용 가운데 “여름철 장마를 못지게 한다”는 것은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묵시록의 예언과 상응한다. 또한 이긴자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피로 보여지는 생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 바 있다. 이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묵:11:6)라는 묵시록의 예언을 성취하는 성경 상의 주인공이라는 증거가 된다.\*